

# HKJ 2010

발행처 : HKJ 한양대학교 예술학부  
한국무용파트  
편집인 : 안지형  
편집부장 : 이경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산 17번지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331호  
전화 : 02-2220-1334  
팩스 : 02-2297-7746  
e-mail : dambicom@hanmail.net  
인쇄소 : 광세당인쇄

내일의 춤꾼 내일의 예술가가 있는 HKJ(Hanyang Korean dance Journal)

2010년 2월 5일 / 제9호 HKJ

## 바람글...〈두울〉

2010..Flow... 매일의 위대함을 기억하자.

시간은 우리의 곁에 머물러 아주 천천히 스치고 흐른다.  
우리는 바스락 거리는 모든 시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돌아오지 않는 과거를 아프게 들여다 보기 보다는  
현재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자.

지나고 보니 나쁜 일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강물과 바람이 모래를 실어 나르듯  
모든 것은 인생이 실어 나르는 모래알과 같은 것이다.

모래알은 손에 쥐려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버린다.  
내가 누군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손이 빈손이어야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것을 옮겨놓거나 너무 많은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빈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 주는 삶을 살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갈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우리는 기꺼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매일을 소중히 하며 그 과정을 즐길줄 아는  
마음과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닫힘없이 열린 비워낸 마음으로 양팔을 벌리자.  
그리고 양팔을 치솟아 오르는 날개로 만들자.

We can fly !!

-편집인 안지형-

지 면  
안 내

2 우리춤연구소 어제와 오늘

3 춤으로 여는 세상

4·5 한양&콤 춤! 춤!

6 냉정과 열정사이

7 한양감성 팡팡

8 HKJ 2010 종합

# 2009 우리춤연구소 제3회 학술심포지엄

## “예술적 담론으로 본 한·일 지역문화 재조명- 경기도 편”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  
에 우리 춤 연구소가 세 번째  
국제학술심포지엄을 2009년 10  
월 10일에 개최하였다.

우리 춤 연구소는 4년 전 한  
양대학교가 지향하는 글로벌스  
탠디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며 국제적  
인 교류를 통해 우리것을 널리  
알리는 한편 열린 시각으로 다  
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국제문화교류의 핵심  
적 과제로 각 지역의 문화를  
예술적 담론으로 풀어보자 시  
작한 심포지엄이 어느덧 3년이  
흘렀다.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춤 연구소는 한국연구재

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2년 연속 한양대  
학교 우수연구소로 선정되었다.

작년 “충청도의 춤 문화와  
음악 및 백제미술”이었다면 올  
해는 ‘일본 동경 주변 지역의  
문화의식과 동북 양가의 지역



적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 경  
기도의 지역문화’를 선택했다.

올해는 총 67지 주제로 고  
노예이자, 고장자, 박영광, 김  
명란, 이병옥, 김영운은 교  
수들이 발제를 하였고, 토론으  
로는 김태원, 이주희, 안상복,  
이부연, 오혜순, 김우진 교수들  
이 참여하였다.

-이경주(06)기자-

### 우리춤연구소 제 10집

‘우리춤 연구’ 논문집 정기발간



2009년  
12월 우리  
춤연구소  
는 지금까  
지 정기적  
으로 발간  
회수를 유  
지하여 역  
사, 교육, 기호, 음악, 미술,  
공학 등을 비롯해 우리춤의  
발전을 위해 통합적 학문과  
의 연계체제로 공동 연구 및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  
으로 논문집을 구성하였다.

논문 투고자의 전문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접수된  
논문 중에서 최우수 논문  
포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우리춤연구소의 활  
동은 문화산업에 다양한 소  
재를 제공하고 후손에게는  
무형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경주(06)기자-

## 2009 우리춤 체험프로그램

### “방과후 교실 레인보우 스쿨 연말 발표회”

2009년 12월 12일 성동청소년  
년수련관 무지개극장에서 우  
리춤 연구소와 성동 청소년 수  
련원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  
로그램 중 하나인 방과후 교실  
레인보우 스쿨 연말 발표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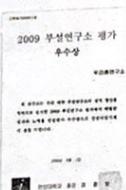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한 해동안 꾸  
준한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며

글짓기, 만들기 전시회등을 선  
보이며 막을 열었다. 이날 공  
연에는 성악, 합창, 방송댄스,  
모듬부, 소고춤 등을 선보였는데  
이날 공연장에서 뛰어져 나온  
온 열정과 열기로 추운겨울의  
칼바람마저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다.

-유소라(08)기자-



### 2회 연속 교내연구소평가 “우수연구소” 선정



지난 상반기 교내연구소평가(기  
간: 2007.3~2009.2)를 실시하여 최우  
수 연구소 4개, 우수연구소 10개와  
기타 모범 연구소, 우수신설연구소가  
선정되었다. 우리춤연구소는 운영평  
가에서 만점을 부여 받았으며, 세미  
나, 공연, 심포지엄에서도 계열 최대  
점수를 확보하였다.

우리춤 연구소는 타 연구소에 비해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이론과 실기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융합연구소로서의 입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소는 ‘2회 연  
속 교내 우수연구소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상으로  
1년간 연구소 조교를 배정받았다. 2005년 설립 이후 2회 연  
속 우수연구소 선정’은 분야별 훌륭한 운영위원과 편집위  
원의 경험과 연구원들의 신뢰와 수고가 이뤄낸 결과이며,  
신진연구원들의 활력과 활기를 불어주는 매우 값진 실적이  
있다.

-이경주(06) · 유소라(07)기자-

## 제2회 연구회 강습회 “춘앵전”



2009년 6월 27일 ~ 28일 이를  
간 진행된 제 2회 우리춤연구  
회 강습회는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강습회는 ‘심숙경’(국  
립국악원 지도위원이자 궁중  
무용가) 선생님을 모시고 입체  
적인 율동미가 아닌 평면적인

선과 아름다움을 가진 춘앵전  
강습을 진행하였다.

춘앵전은 조선 순조 때 창작  
된 향악정재(鄉樂呈才)의 하나  
로 효령세자가 아버지 순조 대  
신 어머니 순원숙황후(純元肅  
皇后)의 40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만든 정제로 별에 베드  
를 가진 춘앵전 강습을 진행하였다.

나무 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꾀  
꼬리 소리를 듣고 만든 것으로  
길이 6자 가량의 화문석위에서  
흔자서 추는 독무(獨舞)이다.  
무의(舞衣)가 무동일 경우는  
복간(幅巾)에 앙삼(鶯衫), 여기  
일 경우는 화관(花冠)에 앙삼  
의 복식을 차려입는데, 앙삼은  
꾀꼬리를 상징하는 노란색이다  
반주율악은 《평조회상(平調會  
相)》 전곡을 사용함으로써 흐  
름의 변화가 거의 없다.

주로 정적이고 느린 동작이  
주를 이루지만 그 화려함과 아  
름다움은 한국 춤 특유의 내재  
된 정·중·동·의 사용과 정적인  
특징 가진 춤이다.

정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미적 아름다움과 정서적인 가  
치를 인간문화재이신 ‘이흥구’  
선생님의 이론적 설명이 더해  
져 춘앵전이 지난 깊은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귀  
중한 시간이었다.

제’라는 주제로, ‘김용’(중요  
무형문화재 차용무 예능 보유  
자) 선생님의 초청강연이 열렸  
다.

시용무보(時用舞譜)를 태극  
도설(太極圖說)에 의한 음양  
(陰陽)의 상생(相生), 상극(相  
剋)의 의미와 천지간에 운행하  
는 목(木), 화(火), 토(土), 금  
(金), 수(水)의 5가지, 그리고 인  
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5덕의  
중도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동양적 사상을  
토대로 시용무보의 실재를 재  
현함으로써 정체의 깊은 의미  
와 가치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유소라(08)기자-

## 우리춤연구소 특별초청강연

### ‘시용무보(時用舞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이해의 장



우리춤연구소는 2009년 7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양대학교  
IT건물 한국무용 흔에서 ‘시용  
무보(時用舞譜)’의 이론과 실

## interview

# 음악인이 바라본 무용계 발전을 위한 방안

무용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가.

전공자의 시각에서 본 무용계와 달리 다른 분야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무용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취지에서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음악인의 시각에서 본 현 무용계와 그에 따른 발전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인터뷰를 시작했다.

## 1. 무용계와 음악계의 현재 교류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용인들과 처음 작업을 했을 때보다 좋아졌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과 다르게 최근 각 학교 무용과에는 반주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안무가들도 라이브로 공연하고자 노력하는 등 점차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용가와 음악가의 사이가 친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용인과 음악인은 작업시 항상 교류하지만 작업 외에 평소 연습할 때부터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해요. 작업하는 시간 외에도 평소에 차를 같이 마시거나 영화를 관람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

해야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무용계와 음악계가 상호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상호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해야 하는데, 사실상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서로 간의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교 안에서만 보아도 음대와 무용과 학생들 간에 교류가 없기 때문에 기까워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공연관람을 함께 하고, 함께 듣는 수업이 마련되면 더 가까워 질 수 있는데,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 3.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무용하는 학생들을 보았을 때 '파연 무용'이 정말 좋아서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건 저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점이죠. 실제로 그렇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

무용가가 될 학생들에게 그런 점이 약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무용수가 부상당하는 경우를 보면 음악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춤을 추다 보면 호흡이 어긋나서 부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악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해서 그런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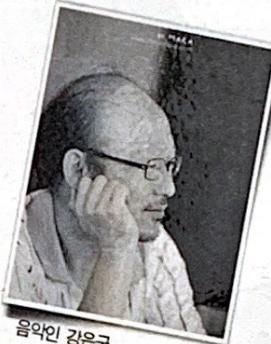
## 4. 이상적인 예술분야의 모습을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 전반적으로 악·가·무 일치를 지향합니다. 무용하는 사람이 음악을 공부해야하는 것처럼 음악을 하는 사람도 미친가지로 춤을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무용을 하는 학생들이 음악공부를 하듯이 음악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네. 현재는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춤 안의 몸짓이 선율이 될 수 있고 연주하는 동작이 춤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뛰어난 무용가들을 보면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배우는 등의 음악교육



음악인 강은구

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에 비해 우리는 음악과 무용이 많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음악과 무용은 표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한 몸인데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배운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악·가·무가 일치되는 예술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영(07)기자

## 진로 interview



한국댄스테라피 협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것은 마음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신체는 정신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 신체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성이 대두되어 그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통합을 돋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예술계 여러 분야에서 심리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 무용동작치료(Dance/Movement Therapy)는 창의적인 예술심리치료법으로 인간의 몸짓과 무용의 창의적인 표현특성을 치료의 매체로 사용하여 심신의 장애를 가진 대상에게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자극

을 주어 자기발달과 표현, 내적갈등을 승화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시킨다. 치료대상자의 즉흥적인 동작형태가 무용동작치료법의 출발점이 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체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생각을 갖게 한다.

무용동작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로써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아닌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표현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개인 치유와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치료사들은 움직임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유도하며 치료에 참가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정서의 표현을 존중한다.

하지만 무용치료는 발달해 온 역사가 매우 짧고 지금도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많은 이들에게 비교적 새롭고 낯선 영역이지만 현대의 관심사가 육체적,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옮겨 갈 것으로써 무용동작치료도 다른 표현예술치료와 함께 통합치료의 특성을 띠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재활치료회 교육학회 무용동작치료 교육 연구회 "정문화"씨와 무용치료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1. 무용치료를 받고 실제로 좋아진 사례와, 무용 치료의 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치료의 효과는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담자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내담자가 있는 반면에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내담자도 있다입니다. 긴장한 예를 들자면, 대인관계 기술

이 미약한 정신분열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보다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진 무용동작치료를 제공한 후 대인관계 기술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 2. 무용 치료사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필요한 조건이나 자격증은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① 한국재활치료교육학회 무용동작치료교육연구회에서는 무용/동작 치료사 과정을 위한 교육과정을 매 학기마다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무용동작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에서는 무용/동작치료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되었고 표현예술치료학과 내에 무용/동작치료 전공이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 3. 선생님께서 심리치료사(무용치료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고등학교 때 무용이론 수업에서 썼던 교재 중에서, 무용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chapter가 있었어요. 그때 무용이 가지는 의미 중에 치료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되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무용으로 치료를 받고 싶고,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 4. 선생님께서 치료를 하시면서 느끼시는 보람과 우리나라에서 무용치료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무용/동작치료사는 내담자 혹은 환자

의 비언어적인 신체 움직임의 표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치료적으로 접근하고, 내담자에게 움직임으로 심리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시간 초반에는 거의 없었던 움직임이 크게 확장되고, 서로 움직임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의 무용치료는 최근에 복지관, 학교, 병원, 기업 등으로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데, 아직은 치료사들이 노력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 5. 무용치료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무용치료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용/동작치료의 전체는 더 무궁무진하고 깊답니다. 그리고 무용/동작치료는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의 많은 심리학분야의 많은 기초지식들을 필요로 해요. 꾸준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구요. 그리고 계속적인 신체와 움직임 유연성이 있어야겠죠. 어떠한 움직임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된 신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배울수록 의미 있는 학문이고 직업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대의 관심사가 육체적,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옮겨 갈 것으로써 무용동작치료도 다른 표현예술치료와 함께 통합치료의 특성을 띠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무용치료에 대한 무용전공자들의 관심과 무용치료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안선영(07), 손예원(09)기자

**춤으로 꿈꾸며 미래를 열어간다!**

창작발표회

2009년 5월 13일, 14일은 한양예술극장에서 한양대 무용학과 2학년, 3학년 학우들이 직접 준비한 창작발표회가 있는 날이었다. 창작 발표회는 학우들이 직접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상하고 음악에서부터 의상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 섬세하게 작업하여 무대 위까지 옮겨 지게 된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행해진 창작발표회의 감동과 환희는 여운을 남겼다.



## 졸업발표회

11월 25일 (수) 한양예술극장은 큰 기대를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졸업발표회를 보기 위해 한양예술극장을 찾은 사람들은 큰 기대만큼이나 풍부한 감정과 폭발적인 표현으로 실력을 뽐내준 4학년 학우들의 공연에 큰 박수로 환호했고, 재학생으로서의 마지막 공연으로 4학년들의 성숙된 모습이 돌보였다.

-박정아 정지선(08)기자-



## 한양대학교 70주년 기념행사 공연 개막식 & 폐막식

## '70일의 기적' 헌혈 나눔 대축제



개교 70주년을 맞은 한양대학교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그 중 2009년 3월 9일 70주년 개막



## M.T! 그 나눔의 시간

지난 4월 3일(금) 한국무용 전 학년과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M.T를 다녀왔다. 인원이 많은 만큼 대형버스로 이동했으며, 많은 양의 음료와 음식이 함께 준비되었다.

그리고 늘어나는 멤버십으로 멤버십이 커졌다. 멤버십 Trainning의 장소는 어느 M.T와는 다르게 숙박, 민박집이 아닌 강촌의 한 펜션으로 정해졌다. 이번 해에는 전년도와는 차별되게 좀 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특별히 'M.T위원회'를 결성했다.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진행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좀 더 즐겁고, 편하게 즐길 수 있었다. M.T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학년을 섞어 구분 없이 조를 정해 학년간의 친밀감을 높였으며, 풍선 터뜨리기, 밤 묶고 사탕 먹기, 카드 뒤집어 색깔 통일하기, 쪽지에 써여진 미션수행하기 등 다양한 게임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신입생은 물론 학년을 막론하고 춤과 노래, 개그, 패러디 등 여려 분야의 장기자리를 통해 다양한 끼를 보여주었으며, 조원간의 팀워크와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이날 처음으로 M.T를 가는 일학년들은 교수님과 단독으로 면담을 갖아 한양대학교 무용과의 일원으로 써의 마음가짐과 그에 맞는 행동을 배워 일학년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번 M.T는 학년 구분 없이 지어진 조끼리 한방을  
씀으로써 선배와 후배사이도 좀 더 두터워졌으며, 비  
로 1박 2일의 다소 짧은 기간 이었지만 모두가 함께하  
는 만큼 뜻 깊은 시간이되었다.

-유난희(09)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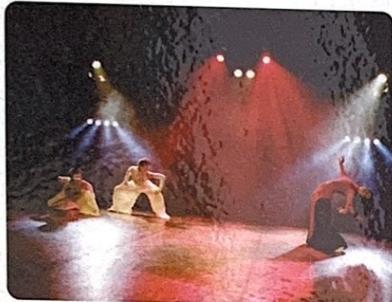
## '의료학과와 무용학과의 아름다운 조화'

70주년의 또 다른 행사로 5월 14일 의류학과 패션쇼가 진행되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의류학과에서는 졸업발표회를 크게 연다.

2009년은 한양대학교가 개교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의류학과 역시 70주년의 뜻을 기리고 축하하기 위해 무용학과 한국페트와의 학동 작품을 제작했다. 이것은 의류학과와 학동하여 개교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뜻깊은 기회였기에 그들과 함께 즐겁게 그 행사를 준비하고 참석하였다. 또한 이 공연은 회사로부터 주최되었지만,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는 아니었다. 회사하고 정의의 레이션은 아름다운 의상과 한국무용창작 작품이 들어내는 오묘한 조화의 학동작은 패션쇼 무대의 하이라이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성황리에 끝낸 공연은 이수들을 남긴채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뜻깊게 미루리 지어졌다.



# 2009 '묵간(墨間)' ...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되돌아보다



천주은 "얼음심장"



도은진 "우(間)리"



인지형 "숨(su:m)"

김운미 'ーム' 무용단이 해마다 올리는『묵간』이 벌써 11번째를 맞이한다. 젊은 안무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이 돋보이는 이 공연은 12월 9일(수), 10일(목) 양일간 총 전용 M극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무대는 천주은『얼음심장』, 도은진『우(間)리』, 인지형『숨(su:m)』 순으로 작품이 펼쳐졌다.

11번째 묵간 시리즈는 사이 「間」을 주제로 하여 삶의 모든 관계성에 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인간은 사람인 '人' 자체와 사이 간 「間」자가 합쳐진 말로, 인간

이란 말 자체가 이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주은『얼음심장』(강요찬, 김기승, 정지우, 이경주)은 숨들이 돌아가는 세상에 심장 없이 살아가는 차가운 인간들의 모습과 자아에 대한 절실히 표현하였다.

도은진『우(間)리』(이록, 김운정, 조소영)은 관계 속 고독과 인간 사이의 소통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인지형『숨(su:m)』(권혜영, 임해진, 정민자, 윤영식)

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행위를 호흡으로 보아 그것을 인간의 존재 자체라고 보았다. 우리 춤의 미학의 바탕인 '함께 숨쉬기'를 관객과 춤꾼의 호흡으로 소통이라 하였다.

젊은 안무가들에게 이러한 시도는 작업과정에서 뛰어난 실현정신과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며 무용수들 또한 기량과 표현력이 한층 발전된 모습이었다. 앞으로도 멋진 무대를 기대해 본다.

-안선영(07)기자-

## 2010 Kum dance company performance



인지형 '내가 숨쉬는 공기 聯作- 하늘바라기'

〈신진 안무가 NEXT〉 김운희 안무 "열한손가락"이 4월 18-19일 무용전문극장 M극장에서 공연되었다.

〈2009 상반기 이슈와 포커스-우리춤의 길을 물다〉에 인지형 안무 "내가 숨쉬는 공기 聯作- 하늘바라기"가 선정되어 6월 20-21일 M극장에서 재공연 되었다.

〈제3회 국제학술심포지엄〉(우리춤 연구소 주관)에서 10월 10일 박시원이 개회식 공연으로 "태평무"를 공연하였다.

〈제2회 메트로 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포럼〉에서 서울 특별시와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공동 주최 및 서울시 여성가족 재단의 주관으로 10월 22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김운미 무용단이 "태평무, 남성무용수의 북춤, 여성 무용수의 삼고무"를 공연하였다.

〈2009 한양대학교 정기총이사회〉에서 박시원이 한국 전통 무형문화재인 "태평무" 작품을 공연하였다.



김운희 "열한손가락"

〈2009 떠오르는 안무가전〉 인지형 안무 "내가 숨쉬는 공기 聯作- 하늘바라기"가 3월 14-15일 무용전문극장 M극장에서 공연되었다.

2009년 Kum Dance Company는 김운미 예술감독의 지도 아래 단원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혼신의 연기로 많은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성공리에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색깔과 독창적인 안무를 무대에서 선보였다.

앞으로의 2010 김운미 무용단의 도전적인 정신과 단원들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

-이경주(06), 나희영(08)기자-

## Hot focus

###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지난 2010년 1월 31일, 경기 성남 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 시상식은 한국 연예예술인 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하는 것으로, 올해로 16회를 맞이했다.

이 날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김운미 교수님께서 '안무가상'을 수상하셨다.

〈김운미 KUM Dance Company〉는 지난 15년 동안 김운미 예술 감독의 지도 아래 '여자'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누구라도 그려하듯이', '훤웃', '조선의 눈보라', '온달', '푸리 I, II', '1919', '합 I, II, III', '그 한여름', '축제' 등의작

품들을 공연해 왔다. 이를 작품 안에는 역사 속에서 여성과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운미 교수님은 지난 15년 동안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정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주소를 춤으로 과고들었다.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이 겪는 고통과 역사의 아픔 속에서 여성의 강요당한 회생 등... 주제는 '시대와 여성' 이었다.

김운미(KUM)무용단은 역사의 한 순간을 여성의 시각에서 미시사적으로 해석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교훈적이고 사실적인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 춤시위로 풀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김운미 예술 감독은 여성의 시각에서 우리의 역사를 춤으로 풀어내는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즉흥성과 개방성이 맞물린 동작을 조화롭게 창출하는 안무가, 또한 작품에 있어 분석력과 상황파악력이 학자답게 정확한 예술가로도 평가받고 있다.

-박진영(07), 정자선(08)기자-

## Congratulation



안지형(김무용단)이 2009년 12월 30일 공연과 리뷰 주최 PAF 예술상 시상식에서 "2009 PAF 신진 안무상"을 수상하였다.



조의연(4학년)이 2009년 6월 10일에 있었던 제 27회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Q 현재 창작 춤의 경계에 대한 생각을 짧게 얘기한다면?

최 고은(이하 최) : 한국무용으로 봤을 때 전통춤이나 민속무용을 접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무용 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창작 춤을 보면 현대 무용인지 한국 무용인지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 성후(이하 김) : 우리나라에 경우에만 경계가 모호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 유라(이하 라) : 현재 창작 춤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무용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선아(이하 박) : 네, 저도 역시 창작 춤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경은(이하 안) : 각자 고유의 색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진승(이하 강) : 우리나라의 경우로 봤을 때 세 파트로 나뉜다는 데에서부터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Q 현재 창작 춤의 경계가 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김 : 기준의 것이 아무리 새로웠다고 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더욱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준의 것들이 깨지면서 더욱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점점 각 무용의 경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안 : 제 생각에는 우선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이 세 파트의 색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고유의 것인 각 춤의 전통적인 것은 지나고 되어 주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상황은 전통적인 것들이 점점 무시되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각자 고유의 색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 한국무용이라는 춤은 현재 우리나라에만 존재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여러 외의 무용형태가 합쳐져 하나의 춤으로 보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파트로 나누고 각각의 차이 두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용계의 화두는 춤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다 경계를 없애고 무너뜨리고 있는 작업이 유행처럼 번져가면서 창작 춤에서 전통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작품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국무용이 현대적으로 변해 가는가 하면 현대무용이나 발레가 한국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처럼 창작 춤의 경계는 점점 애매해지면서 심지어는 다른 예술 분야 까지 넘나들고 있다.

자신들이 이어온 전통과 정신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과 다른 부분을 채워가며 변화시켜나가는 것들 중 어느 것이 옳다 그렇다 답은 있지만 한국 무용계의 창작 춤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정확한 기준이 없는 창작 춤의 모호한 경계상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무용계를 이끌어 나갈 예비 인무가들과 무용가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Q 이러한 현상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박 : 한국무용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고 다양한 춤을 출수 있습니다. 발레와 현대무용은 비슷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나 절차적인 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무용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닮아가면서 외국무용과 한국무용을 결합시키면 외국보다 더 다양한 새로운 춤의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 본래 춤이라는 것은 세가지 형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닌 단지 '춤'이라는 한 가지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각자의 개념을 더욱 살리다 보니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이라는 세분류의 무용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꼭 무용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분야를 봐도 항상 순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나님에서 세 개로 나누어 지다가 점점 다시 하나님에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각 파트, 다른 무용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Q 창작 춤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 표현하려는 욕구는 좋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 한국무용 같은 경우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진 한국 창작 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 굳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인지 정답은 없지만 어느 쪽으로 유틸리티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소통하다 보면 창작 춤이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 :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 무용으로 편 가르기 보다는 현대무용과 발레와 한국무용을 결합하여 새로운 춤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어떤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지?

안 : 모든 사람의 삶을 이해 할 수 있고 그 삶이 누가 보든 어느 시선에서 보든 이해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창작 춤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 : 우선 한국무용이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 무용인이 가지고 있는 향기를 담고 있는 그런 창작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창작 춤의 경계에 변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한 한국 발전은 계속 될 것이고 세계 속에서 한국 창작 춤은 단단하게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희영, 유소리(08)기자-

## | 좌충우돌 365일

###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지난 한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 떨리고 벽한 공연을 봄소 체험한 한 해였다. 춤과 어우러져 학업을 병행하며 쉼 없이 달리다, 나에게 뜻밖의 어학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먼훗날 들여다보며 다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이기에 주어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휴학을 결심하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2009년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국 위성된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내가 머물던 곳 버지니아, 생각과는 달리 한인사회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미국생활에 적응 할 수 있었다.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거리,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미국에서 차를 사리는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나는 대중교통을 고집했다.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한자리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종종 있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재미났고, 차친나의 말로 인해 친구들이 한국은 이런 곳이다 단정 지을 수 있기에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우리의 춤에 대해서 종종 설명 하였는데, 다른 곳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내가 있던 이곳은 한국의 춤에 대해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중국과 일본의 춤에 대해서는 조금씩 알아도, 우리의 춤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질문도 많았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나는 노트북을 들고

기에서 공연소식이 들렸고, 티켓 값이 저렴하였기에 친구들과 종종 공연장을 찾았다. 집 근처 극장인데 규모는 상당히 커고, 그 큰 극장 안에 자발적으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은 가득 메워졌다. 공연의 마지막은 모든 관객들의 기립박수. 공연하는 이들에게 아끼지 않고 환호해주는 관객들의 모습, 공연을 보러 온 이들이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양하였기에 미국의 자연스러운 공연문화가 부러웠다.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한자리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종종 있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재미났고, 차친나의 말로 인해 친구들이 한국은 이런

다니며 사진과 동영상을 동원하여 우리의 춤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친구들은 이렇게 독특한 우리나라의 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면 한국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한국의 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너의 삶이 바쁠 것 같다고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웃으면서 얘기해 주었다.

어느덧, 미국에서의 사계절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을 코앞에 두고 있다. 요즘 미국의 생활을 마무리 지으며, 아쉬운 점도 많고 그만큼 추억도 많지만 가장 값진 것은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얻고,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춤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세계화 시대 우리의 춤이 세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있다다는 것을 느꼈다.

미국에서의 시간은 나 자신에게 앞으로 더욱 무용을 하고 싶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년이라는 공백이 짧지 않기에 후배들보다 더욱 노력하여 춤과 학업에 열중하여야 하겠지만, 한층 성숙해진 마음으로 다가오는 2010년이 설레어온다.

-이수민(08)-



## 자유칼럼

## 신종 플루의 출현, 이 시대 무용은?

## '신종플루 사망 8천명 육박...변증 확산'

요즘 신종인플루엔자(약칭 신종플루)라는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사회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다. 거리를 지나다니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이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사람, 조류,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혼합되어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건강한 사람

의 경우 7일 이내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임상상상은 전형적ILI를 포함하여 중증 폐렴, 폐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열이 없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신종플루는 과거 중세 시대에도 있었던 흑사병을 떠올리게 한다. 흑사병은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이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위의

피를 빨아먹는 동안 페스트균에 감염되고, 이 벼룩에 사람이 물리면 페스트균에 감염된다. 바로 이것이 중세에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여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감안하게 했던 것이다.

이 당시에 무용은 사회적 큰 문제인 흑사병으로 인해 생긴 여러 하위 문체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점차 심각해져 춤만 추다 죽기까지 하는 무도왕이라는 개념까지 생겨나게 될 정도였고, 이것이 14~15세

기에 걸쳐 독일과 영국 등 서유럽 전 지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러한 사례는 원시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황홀한 춤'(Trance Dance)이 있었는데 이는 다산과 힘의 유발, 죽음에 대한 반동인 생명의 형태로서의 체험을 의미했다고 한다. 환각 상태이건 아니건 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역사 속 유사한 사실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신종플루가 민연되고 있는 현시대의 위기를 무용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써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중세시대의 무도왕이나 원시시대의 황홀한 춤이 좋은 점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고 수정하여 무용공연의 양상을 개척하고 나아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부분으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하혜림(06)기자-

## 시민 이야기

지난 2009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특별한 에피소드를 담은 사진을 공모하였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에 다녀온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09학번 유난희학생의 사진이 선정되었다.

## &lt;episode&gt;

아버지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장기 해외 출장을 가셔서 입시 결과 한양대 합격이란 소식을 듣고 아버지도 볼 겸 여행도 할 겸 겸사겸사 에티오피아에 방문했다.

TV에서 보던 것처럼 활벗고 굽주린 아이들이 대다수었지만, 반면에 궁전과 같은 집에서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후진국이여서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아생동물을 보기위해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원숭이와 흥학, 하이에나는 볼 수 있었지만, 멋지게 뛰어다니는 사자나 기린, 코뿔소는 볼 수 없어 아쉬웠다. 관광객이 종종 있는 만큼 사람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원숭이들은 간식을 얻어먹기 위해 다가오는데, 이때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엄마원숭이의 젖을 물고 놓지 않는 아기원숭이를 볼 수 있었다. 어찌나 사람 같던지 카메라 서터 누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한국과는 다른,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벌판과 키 작은 나무들은 아프리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뜨거운 태양아래 한 쪽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사진/글 유난희(09)기자-

## 감성이슈

## 추운 겨울 생각나는 음식 Best 5

## 떡볶이

매콤하고 달  
짭지근한 떡볶이는 겨울철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죠.

쫄깃쫄깃한 살

떡, 말랑말랑한 밀가루떡.

떡의 환상의

작공 어두까지!

저렴한 가격에 우리의 입을 행복하게 해줘요.

## 붕어빵

요즈음에는 웨딩 음식이 각

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붕어

빵에도 다양한 맛

들이 생겨났어요.

붕어 대신에 팔,

슈크림 말고도 매

콤한 김치, 녹차,

고구마 등과 같은

양금들이 우리를

행복한 고민에 빠뜨리죠.

## 굴

겨울철 백미.

굴이 빠지면

씹씹하죠! 추운

겨울 날, 뜨끈한

방에 앉아 TV를

보며 차기운

굴을

꺼내면 빠뜨리죠.

## 2010 김운미 교수님 동정



2009년 김운미 교수님은 지난해 12월 취임하신 한국무용사학회 회장으로서, 한 국무용과 일본 무용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한국무용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시는데 일조하셨다. 올해 5월 23일 한양대학교 HIT관에서 개최한 한국무용사학회의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한·일 겸무(劍舞)의 사적(史的) 조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셨다.

우리춤 연구소 「우리춤연구」는 2008년도 등재후보지(한국연구재단)로 선정된 이후 연 23회(6월30일/12월31일) 발간에서 연 3회(4월 30일/8월 31일/12월 31일)로 증간되었다. 또한 연구과제에 있어서도 「우리춤」이라는 탐구

-성지수(09)기자-

### Diary of hope

#### 꽃이라 불리는 대학시절 4년

2006년 부분 기대를 안고 한양대학교 무용학과를 입학했을 때가 어제일 같았는데 이제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학시절의 4년을 정말 즐겁고 뜻 깊게 보냈습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동아리, 공연, 인턴 활동 등 많은 것을 겪으면서 점점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의젓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없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젠 한양대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나의 이름 세 글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냥 대학생일

것만 같았던 저에게 사회인이라는 수식어는 많이 낯설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젠 학교를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한양대학교 졸업생이라는 표지표가 붙기 때문은 아니지만 저는 한양대 학생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걸음씩 나아가는 한양인이 되고 싶습니다.

늘 항상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교수님과 이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후배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010 졸업예정자 조소영(06)-

#### 앞으로의 4년을 기대하며

매일 한양대학을 생각하면서 고된 실기 연습과 죽음의 디어트를 강행한 날들이 바로 엎그제 같은데 그토록 바리던 한양대 학생이 된지 거의 1년이 다되어가니 정말 신기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OT를 통해 만난 동기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친해질까? 두려웠는데 같이 엠티도 가고 수업도 들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져서 지금은 언제나 함께하는 동기들이 힘이 되어줍니다.

#### 不狂不及 2010

먼저 한양대학교 예술학부 한국무용과 트 신문이 있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자리는 나의 글을 조심스레 옮겨본다. “不狂不及” 불왕불금. 그 어떤 것에도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나의 20대 좌우명이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를 수 있는 큰일은 없다. 학문도 예술도 사랑도 나를 온전히 잊는 물도 속에서만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남이 미치지 못할 경지에 도달하려면 미치지 않

또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제가 저 스스로에게 개척해서 미래를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규칙이 있어 어긋나지만 않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정반대로 대학교는 규칙 같은 것이 없어서 스스로 규칙을 정하며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3때 목표를 가지고 정정을 발전했던 그 때의 시절을 떠올려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010 새내기 김찬미(09)-

고서는 안된다.

나에게 2010년은 일반적인 년도나 새로운 해가 아닌 어른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걸음에 무게가 놓아짐을 느끼게 하는 해이다.

눈 덮힌 길을 걸어 갈 때에는 한발 한발을 조심스레 걸어가라고 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 오기 때문이다. 나의 한 걸음이 내가 아닌 한양대 한국파트 모두의 걸음이라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고 공부하겠다.

대 한양대 화이팅!!!!

-Kum dance company 단원 강요찬-

### HKJ 편집후기



명제를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셨다. 특히나 국제적 문화 교류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10월 10일 우리춤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예술적 담론으로 본 한·중·일 지역문화 재조명·경기도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제3기 무용분야 서울제주 지역교육위원회 위원회 취임하시며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모습으로도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2008년에 비하면 대외적인 활동은 적은 2009년이지만, 교수님의 연구결과는 올 한해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춤연구소는 이제 설립5주년을 맞이하고 여기에 더욱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였을 터, 바쁜 와중에도 훌륭한 연구자와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존경스럽다.

-이경주-06-

서툴고 어려웠던 처음신문보다는 두 번째로 민든 신문이기에 더욱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HKJ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정지선-08-

처음엔 HKJ기자로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선생님과 선배님들의 열정과 관심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요번 HKJ신문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HKJ기자가 되겠습니다.

-김천미-09-

작년에 이어 신문편집을 통해 2010년의 시작을 보람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는 것이 많은 만큼 보람도 커졌습니다. 신문이 만들어지기까지 같이 고생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과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HKJ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더불어 HKJ가 해마다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진영-07-

글을 쓰기위해 책상에 앉는 순간부터 직접 신문을 받아보기 까지..

글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대감은 표현 할 수 없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앞으로 HKJ가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진영-07-

글을 쓰기위해 책상에 앉는 순간부터 직접 신문을 받아보기 까지..

글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대감은 표현 할 수 없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앞으로 HKJ가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선영-07-

2번째 참여하는 HKJ였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2009년의 많은 일들을 한번 더 돌아보며 많은 반성과 많은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도 그린 다짐과 함께 HKJ 파이팅

-나희영-08-

신문편집은 언제나 기대되고 설레이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운미 교수님과 안지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2010년 다가온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류소리-08-

작년에 이어 이번 해에도 신문편집을 맡게 되어 참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이 된 만큼 아쉬움도 큽니다. 앞으로 더 나은 HKJ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박정아-08-

신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는데 선생님, 선배 언니들과 즐겁게 신문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신문을 만들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신문이 완성되어갈 때마다 보람 차고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하는 HKJ 기자가 되겠습니다.

-성지수-09-

이렇게 제가 참여한 기사가 신문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니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고 아직은 어색한 기분이 먼저 듭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HKJ의 기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훌륭한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KJ 파이팅 ^^!

-손예원-09-

대학에 입학해 신문부에 들어와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전까지 써왔던 글과는 다른 형식의 글을 쓰게 되어서 개인적인 작문능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점차 나아지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et's go HKJ!

-유난희-09-

“HKJ”신문이 어느덧 9호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나난했던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모든 과정을 묵묵히 잘 따라와주었던 우리 HKJ기자 모두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2010년 모두가 건강한 자신감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않으시는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편집인 안지현-